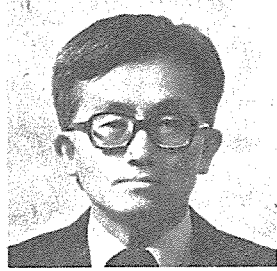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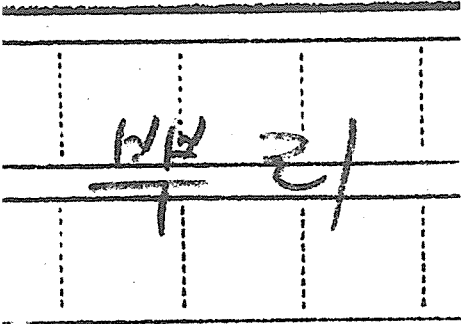


이 세상 모든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한 포기의 풀이나 한 그루의 나무만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밖의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도 뿌리는 있다. 작년엔가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된 『뿌리』라는 작품은 미국의 흑인가족의 족보를 캐 보는 것이었다고 한다. 서양사람들이 갑자기 族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다.

사실 族譜란 가족의 뿌리를 찾아 밝혀두려는 작업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적지않은 돈을 들여가며 족보를 마련하는 인간의 노력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좁게 말하면 그것은 자기 조상가운데 뛰어난 인물들과 자기와를 연결 짓고, 또는 현재 각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집안사이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큰 부분에서의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所屬感이란 다름아닌 인간의 본능적인 生命意志의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것 속에 자기 스스로를 세워 둠으로서 스스로 永生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아 기르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조상을 찾아 族譜를 만드는 것과 자손을 낳아 代를 이으려는 욕망은 똑같이 有限한 생명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표현인 것이다.

뿌리를 찾겠다는 노력은 이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傳統文化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서까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탈춤이나 가면극, 텔레비전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구성 노력등이 모두 그런 것인 셈이다. 이처럼 文化현상에도 뿌리가 있게 마련이건만, 같은 文化현상인 科學技術에 관해서만은 우리는 아직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과학과 기술에도 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한 일이다. 이 경우 그 뿌리란 다름아닌 科學史와 技術史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이란 우리 역사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西洋史의 산물을 20세기에 들어와 배워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깊은 생각이나 반성이 없이 오늘 우리의 科學技術을 그 뿌리와는 분리시켜 보려는 경향을 낳은 것이다. 어차피 우리 자신의 과학기술적 전통이 현대의 과학기술을 낳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과학기술사는 현대의 과학기술과는 무관하다. 또



朴 星 來 (外國語大 教授)

현대과학기술을 낳은 서양의 전통은 한국인에게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역사나 西洋의 역사를 모두 우리 현대과학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니 오히려 우리의 現代科學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전통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전통과 西洋의 전통을 모두 계승해야 하는 兩面性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현대과학이 이 두가지 전통의 어느 것보다도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성 싶다. 한국의 현대과학 발달은 앞으로는 더욱 더 우리 전통과 西洋전통을 어떻게 소화 흡수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 같기 때문이다. 해방후에서야 겨우 일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현대과학은 아직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한 상황속에 “홍내내기”정도에 바빴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단계를 극복하여 現代科學을 진정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西洋의 文化的傳統과 그속에서의 現代科學의 위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고유의 전통과 現代科學과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우리 현대과학에 튼튼한 뿌리를 길러야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뿌리찾기 운동은 반드시 時間的 또는 歷史的 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同時代的인 空間的 뿌리도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공간적 뿌리란 폭 넓은 대중의 지지와 관심을 뜻하며 특히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科學技術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現代科學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새로운 피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뿌리와 대중속에서 뿌리는 서로 연관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科學風土는 어떤 것이며 그런 풍토 속에서는 현대과학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거의 생각하지 못한 채 西洋科學을 홍내내기에 바빴었다. 이제 좀 그 과정을 반성하면서 보다 튼튼한 뿌리를 갖게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溫故而知新>은 “옛것을 알아야 새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 또 龍飛御天歌의 첫 머리에 나오는 말처럼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꽃이 좋아야 열매도 많은”법이다.